

#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의 학교복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에 관한 연구\* : 가족자원 등을 중심으로

Study on Resources That Influence Drop - Out Teenage Children's Choices on School Reentry  
: Central Focus on Family Resources

중앙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박사수료 윤나나\*\*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박정윤\*\*\*  
중앙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박사수료 박연숙

Dept. of Child and Youth Studies, Chung-Ang University  
PhD course Yun, Nana  
Dep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Park, Jeongyun  
Dept. of Child and Youth Studies, Chung-Ang University  
PhD course Park, Yeonsuk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의 학교복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에 관해 살펴보고자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총 5차년도 2,553명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2년 7월 이후 정규 중·고등학교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을 검증하기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가족자원을 비롯하여 개인의 심리·정서자원 및 사회관계자원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t-test*와 교차분석,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자녀의 학교복귀 선택에 영향을 주는 자원 중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이사횟수였다. 둘째, 청소년 자녀들의 학교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정서자원은 우울, 충동성과 함께 학업을 중단한 현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정도가 낮고 우리 사회가 학력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지각하는 점이 학교복귀 선택에 작용하였다. 셋째, 가족자원으로는 가족형태와 부모애착의 하위요인 중 경제적 지지 측면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도움을 주는 사회관계자원으로서 멘토 여부가 사회자원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토대로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들의 학교복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가족자원을 밝혀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지지적인 가족자원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 학교복귀, 심리·정서자원, 가족자원, 사회관계자원

\*본 연구는 2021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주저자: 윤나나(ynn0629@naver.com), <https://orcid.org/0000-0002-9318-2792>

\*\*\*교신저자: 박정윤(pjy4838@cau.ac.kr), <https://orcid.org/0000-0002-0755-9697>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sources that influence the choice of drop-out students' reentry to school. A total of five years of panel analysis of 2,553 drop-out teenagers from 2013 to 2017 were utilized. In order to verify the resources that affect the choice of school reentry of teenagers with experiences of suspension of studies to formal middle and high school after July 2012, this study analyzed drop-out teenagers' family resources as well as their psychological, mental, and social-relationship resources. A crossover analysis, t-test, and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major outcom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among the resources that affected the choice of reentry for school of teenager children were the type of family and number of moves to a new house. Second, the psychological and sentimental variable that affected the choice of school reentry was a decreasing level of positive recognition of the situation of suspension of studies combined with depression, impulsiveness, and perceiving society as one that discriminates based on the level of education. Third, significant family resource variables were the type of family form and parents providing economic support, which is a subfactor of parental attachment. Fourth, the presence of a mentor as a helpful social-relationship resour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relational resourc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the positive family resources that affect the choice of school reentry of drop-out teenage students were determined, and the positive directivity of supportive family resources is presented for parents with teenage children experiencing a suspension of studies.

**Key words:** Drop-out teenage children, School reentry, Psychological and mental resources, Family resource, Social-relationship resource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한국 사회에서 학교의 의미는 사회 변화에 따라 기능이 변해왔고 최근의 청소년들에게 학교의 의미는 삶의 과정 중 거쳐 가는 교육기관으로 단순화되고 있다. 학교 교육의 의미에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반영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청소년 자녀들은 학교라는 사회 속에 섞이지 못하고 학업 중단 청소년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 학업 중단율은 초중고 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특히 이러한 증가 추세에도 학업중단 이후 학업 유지 비율은 높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5년 대비 2019년의 학업 중단율은 고등학교 0.4% 증가, 중학교 0.2% 증가, 초등학교도 0.2%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 학년별 학업 중단율은 고등학교 1-2학년 시기가 73.8%를 차지하고 있다(윤철경 외, 2015).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말하는 학업중단 원인으로 학교 부적응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가족 문제로 인한 직접적 영향의 학업중단은 10.3%로 나타났고 학업중단 결정에 고민을 나눈 대상으로는 부모님이 7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김성은·박하나·김현수, 2020). 이는 학업중단에 결정에 있어 직접적 원인으로 학교 적응의 다양한 문제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학업중단에 관한 결정의 의논 대상으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이후 한 일은 아이러니하게도 학업이 64.1%로 높게 나타났으며(교육부, 2020), 학업 중단 이후 3년 동안의 경로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복교율은 10.5%로 나타나는 등 학교로 복귀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윤철경 외, 2015). 그중에서도 특히 학교를 졸업하고 싶었다는 52.9% 이유로 다시 학교복귀 선택을 하고 있었지만 복교한 학생들 5명 중 1명은 학교 재중단을 하고 있어 학교 부적응 문제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윤철경 외, 2015).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들에게 학교 졸업 취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교복귀를 한 청소년들은 진로 장벽이 일반 청소년들의 진로 장벽보다 높다고 밝혀지고 있다(김지혜, 2008). 이는 학업중단 문제를 보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청소년 자녀들의 자발적 학교복귀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가족 지지자원을 비롯하여 개인 심리·정서의 자원과 사회관계 지지자원의 지원이 더욱 필요로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지금까지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복귀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소외 집단으로 여겨져 사회적으로 소속되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발견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중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복귀 선택은 소수이기 때문에 더욱 미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학교복귀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교복귀 및 적응, 학교복귀 요인에 관한 연구(문미자, 2002; 이경열, 1999; 조규필 외, 2011; 홍나미 외, 2013)들이었으며, 특히 학교복귀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보다는

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에 관한 연구(오혜영 외, 2011; 정은영, 2020; 최종원, 2021)들로서 학교복귀와 학교 재중단의 예방을 위해 적용하기에는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토대로 김신영과 정경은(2014)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교복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1차년의 연구 자료로만 분석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들도 학업중단 원인 및 과정, 학업중단 경험 등의 주제로 제한적 연구이거나 소수의 질적 연구(김현주·박재연, 2019; 남부현 2021; 조혜영·김영란, 2018)들로서, 학교중단 청소년들의 학교복귀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 학업중단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위협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주요하게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족 및 개인과 사회관계로 살펴보았다(김로라·이조경, 2016; 김옥엽·이연숙·원유미, 2004; 이경민·양경화·이난, 2018; 이자영 외, 2010).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요인들이 개인 심리적 요인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금명자, 2008), 그들의 학교복귀 선택을 돕기 위해 보호요인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Masten & Reed, 2002). 이에 가장 주요한 보호요인으로서 가족자원에 많은 연구들이 관심을 가졌으며,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는 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를 낮아지게 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이희선, 2013; 신은정, 2011).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의 학교복귀와 재적응을 돕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변인으로 가족자원을 비롯한 개인 심리·정서 및 사회관계자원을 분석하여 더욱 효과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려고 한다.

이에 앞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양하게 밝히고자 했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인인 가족자원을 비롯하여 개인의 심리·정서 및 사회관계자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족자원은 청소년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자녀의 관계가 청소년 자녀의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청소년 자녀의 학업중단과 부모의 방임·학대에 관한 연구(반지윤·이정민, 2021; 정송화·이정은, 2021)들이 있는데, 청소년의 방임과 학대 경험은 청소년 시기에 학교 적응 및 다양한 사회 부적응 문제를 일으키는 데 부정적 영향을 주고 부모-자녀 관계의 포기로 인한 방임으로 이어져 학업중단에 이르기에도 한다. 또한 청소년 자녀의 학업중단과 부모와의 애착에 관한 연구(김지민·이은경, 2021; 이준기, 2011; 최수정, 2018, 최우경, 2017)들에서 안정된 부모 애착은 청소년 자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학교 및 사회 적응을 돕지만, 불안정한 애착은 불안정한 심리 및 사회 부적응으로 청소년 시기의 학교 적응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

히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선택과 학교복귀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가족자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 심리·정서적 요인은 주로 우울, 공격성, 낮은 자존감(김은지, 2016; 신문정, 2021; 오은경, 2015)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밖에도 자이존중감, 자아탄력성(공정인, 2021; 김성현, 2020; 김현지·양명숙, 2017) 등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더불어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과 학력·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청소년의 심리·정서에 직·간접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이자영 외, 2010).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정서 특성은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과 학력·미래에 대한 생각을 포함하여 주요한 영향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의 학교복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정서자원을 주요하게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관계자원의 또래애착을 살펴본 연구(문숙자·이윤정, 2021; 이지혜 외, 2020; 한우재·정인관, 2021)에서는 사회관계에서 또래애착이 중요한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부모관계와는 다르게 자발적 관계로서 제공되는 지지자원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친구들과 충분한 상호작용을 하는 또래 애착은 안정된 심리·정서를 제공하고 학교생활의 만족감으로 학교적응에 중요한 지지자원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학업중단과 사회관계자원을 살펴본 연구(전주희, 2019)에서는 멘토와 같은 사회적 관계를 지지자원으로 살펴보고,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에게 긍정적 사회관계 경험은 건강한 심리·정서의 촉진과 위기상황에 지지자원으로 발휘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파악되었다.

지금까지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주요한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가족자원을 비롯하여 개인의 심리·정서, 사회관계자원은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성장발달을 증진을 도울 뿐만 아니라 학교복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학교 적응 자원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 부모애착을 비롯한 부모-자녀 관계와 같은 가족자원은 청소년의 학업중단 및 학교복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복귀 선택에 관한 영향을 소개한 연구들은 개인 심리 혹은 가족·또래·사회관계 등과 같은 단선적인 과관계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의 가족자원을 중심으로 개인의 심리·정서 및 사회관계자원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그 동안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의 학교복귀와 그들의 가족 자원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는데 그 필요성과 목적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들이 자발적 학

학교복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가족자원을 밝혀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지지적인 가족자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질풍노도 시기의 청소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아 정체감 획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을 촉진하여 자기 주도적 학교복귀 선택에 지지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의 학교복귀 선택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의 대표적인 지지자원으로 가족자원을 비롯하여 개인 심리·정서자원과 사회관계자원을 살펴보았다. 이를 연구문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의 학교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자원의 전반적인 경향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2]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의 학교복귀 선택 유무에 따른 개인의 심리·정서자원, 가족자원, 사회관계자원의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3]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 개인의 심리·정서자원, 가족자원, 사회관계자원이 학교복귀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 및 학교복귀 선택에 대한 이해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2002년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에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지칭하였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하여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퇴학·자퇴를 한 청소년을 정책과 통계 등에서 지금도 공식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학업중단 지원센터 ‘꿈 드림센터’는 인식 개선, 상담, 교육, 직업·자립 지원 등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집중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고, 학교 안의 청소년들과 학업중단 청소년 모두 편견 없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식적 지원제도가 되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나라의 수많은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선택을 하고 있고, 일부의 학업중단 청소년은 각자의 이유로 다시 학교복귀를 고려하거나 선택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후 6개월 이후 시점부터는 하루가 지루하고 무의미하며

자신이 한심스럽게 느껴지며(최영신, 2001), 학업중단 이후 자신이 생각했던 사회적 상황과 스스로의 삶을 회의적으로 느끼며 학습과 학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권소연·이미영·장은진, 2018). 즉,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자기 삶의 기대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학업에 대한 필요성과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준비 없이 학업중단을 선택함으로써 그 선택에 대한 후회와 회의감을 갖게 되는 것처럼 학교복귀 선택의 경우도 복교하더라도 자신의 기대와 다른 결과에 따른 또 다른 부정적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의 학교복귀와 관련한 다양한 변인을 고찰하여 충분히 고려된 자기 주도적 학교복귀 선택과 학교 재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복귀를 한다는 것은 학교 재적응으로 인한 불편감으로 학교중단 이전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문선화, 2003), 복교생 스스로가 자아개념이 낮고, 미래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면 학교생활의 재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Muha & Cole, 1991).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업중단 의도와 결정에 대해서 가족이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었고(구자경, 2003; 이희선, 2013),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복귀와 학교 재적응에서도 부모의 긍정적 가족자원이 청소년의 변화의 결정적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조규필 외, 2011). 즉,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의 학업중단 선택부터 학교복귀, 학교 재적응까지 가족의 지지자원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시기에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될 것인지 수없이 갈등과 긴장을 하는 것처럼(이주연·정제영, 2015), 학업중단과 학교복귀 선택에 있어서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 끝에 학업중단과 복교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의 학업중단, 학업복귀, 학교 재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자원과 같은 보호요인을 활성화가 하여 적극적 개입이 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Hernandez, 1993). 보호요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자녀에게 가장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인 가족자원을 비롯하여 심리·정서, 사회관계자원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서로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고(김로라·이조경, 2016), 학교복귀에 대해서 방해 요인들을 개입하여 학교복귀의 긍정적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김진영·정경은, 2014). 즉,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의 가족자원과 청소년 자녀의 보호요인을 긍정적 자원으로 촉진하면 학교복귀를 도울 수 있는 자원이 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위험요인이 감소될 수 있으며 충분히 개입을 통한 자원으로도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의 학교 복귀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자원을 밝힘으로써 학업복귀

와 학교 재중단의 예방적 차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업중단 자녀를 둔 가족이 중요한 지지자원이 되어 청소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2.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의 학교복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가족자원을 중심으로

청소년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교류를 통해 발달을 이룬다. 이때 청소년과 밀접하게 상호 교류하는 자원인 부모·또래·사회적 관계의 긍정적 영향력은 학교 적응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된다(Greene, 1999). 따라서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 요인으로 가족요인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강유진·문재우, 2005). 특히, 가족자원은 학업중단이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청소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요인임을 밝히고 있어(유성경, 2000), 청소년들의 학교복귀 선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의 학교복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자원을 중심으로 개인의 심리·정서자원, 사회관계자원을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족자원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가정 청소년과 비교하여 위기가정 청소년들이 더 많은 학교 적응과 같은 사회 적응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승환, 2001). 즉, 부모의 방임·학대와 같은 역기능적 가족 문제는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안혜진, 2016), 재혼가정(이경림, 2003), 부모의 낮은 정서적 지지(백순희, 2017) 등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가족 특성으로 밝혀지고 있어 청소년 자녀의 건강한 학교 적응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가족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더욱이 가족의 구조적 형태와 가족의 경제 수준은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안정된 부모-자녀 관계의 정도에 따라 위기 행동으로 촉발된다(손충기·배은자·김영태, 2012). 특히, 부모-자녀 관계에서 지속적인 유대감인 애착은 청소년기 자아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Collins & Read, 1990), 안정된 애착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한다(신나나·도현심, 2000; Van Ijzendoorn, 1992). 또한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별개로 경제적 지지를 통한 부모애착은 학업중단이라는 위기 행동에 직접적 유발 요인은 아니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가족자원으로 지각하게 된다(손충기 외, 2012). 이를 통해 가족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도 부모-자녀관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가족의 지지자원은 청소년 시기의 자아개념 형성을 돕고 학업복귀의 촉진과 학교 재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결정적 지지자원임을 예측할 수 있다.

더불어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의 학업복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또 다른 가족자원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심리·정서적 측면에서도 주요함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불안정한

부모애착은 청소년기의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발생하며,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김년희, 2021; 김지민·이은경, 2021). 이렇듯 지지적인 가족자원은 청소년의 자아개념을 발달시키며(Springer, Wright & McCall, 1997), 학교 적응에서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 자원과 특별한 문제로 인지하지 않고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지지자원으로 발휘된다(김성현, 2020). 이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심리·정서는 가족자원이 기반이 되고 있으며,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의 학교복귀 선택에 있어서도 주요한 예측 자원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의 학교복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면, 가족자원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쳐 학교복귀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긍정적 사회관계자원은 안정된 부모애착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데(Fagot, 1997), 이는 학업중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Mouton et al., 1996). 또한 친구와의 지속적 유대감인 또래애착은 안정된 가족관계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학교 적응에 주요한 요인이 되며,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긍정적 자원으로 발휘된다(이은희·양이정, 2018). 반면에 또래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못하면 학교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고립된 것으로 인지하게 되어 학업중단의 주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Mouton et al., 1996). 다음으로 사회관계자원으로 심리상담사와 같은 멘토의 역할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활동 제한을 극복하게 하고, 사회적 관계의 긍정적 경험을 통해 학업중단 이후 학업 유지에 더욱 효과성을 보인다(오혜영 외, 2011; 정민선·김현미·유순덕, 2011). 따라서 사회관계자원은 안정된 가족을 통해 긍정적 사회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청소년 시기에 또 다른 측면의 긍정적인 지지자원이 되어 학교복귀 선택과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자원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외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학력·미래에 대한 생각에 대한 가족자원의 영향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에게 가족자원은 학업의 중단 여부나 학력, 미래에 대한 생각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김미경, 2021). 즉,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생활 및 사회 적응에 대한 만족감 정도에 따라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과 학력·미래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때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다양한 경험의 과정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주요한 관련 자원임을 강조하고 있다(오혜영 외,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들의 학교복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안정된 부모-자녀 관계와 같은 긍정적 가족자원은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의 자기 주도적인 학교복귀 선택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3년에서 2017년까지 1년 주기로 총 5회 실시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이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학업중단청소년 패널 자료의 구축은 학교 등에서 제공한 개인 리스트를 우선 활용하였고 직업훈련기관, 대안 교육기관, 검정고시 학원 등의 기관 및 스노우볼링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함께 사용하였다. 패널의 구축단계인 1차 년도의 경우 개별 리스트 대상은 1:1대면면접, 기관접촉의 경우 1:1대면 면접, 집단면접 자기기입식 조사를 병행하였고 2-5차년도 자료의 경우 전문 조사원을 활용한 1:1 대면 면접 조사방식으로 수집되었다.

본 연구는 구축된 5차년도 전체자료를 사용하여 2012년 7월 이후 정규 중·고등학교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복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을 개인 및 이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중요한 대상인 가족자원에 초점을 두고 검증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의 1차 년도에서 5차 년도까지의 전체자료를 합산하여 얻은 2,669명의 자료 중 연구의 주요변인에 응답하지 않은 결측치를 제외하고 학업중단 청소년 2,553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 2. 측정도구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조사의 설문영역 중 전체조사 기간인 1차 년도에서 5차 년도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문항을 활용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복귀 선택,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배경요인, 개인의 심리·정서자원, 부모-자녀 관계를 포함하는 가족자원, 사회관계자원을 활용하였다.

청소년 시기는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모, 친구, 주변 관계의 영향이 설명변수로 포함되었다(Hoffman et al., 2007; 강유진·문재우, 2005; 심현진, 2014). 개인의 심리·정서자원과 관련된 하위영역에는 학업중단에 대한 이들의 인식, 자이존중감과 자이탄력성, 우울, 충동성이 포함되었고 가족자원으로는 가족의 유형, 가족경제 수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한 애착, 방입, 학대를 살펴보았다. 사회관계자원으로는 또래애착, 친한 친구 수, 성인 멘토 유무를 살펴보았으며 그 외 학력과 미래에 관한 생각을 포함하였다.

##### 1) 학업중단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연구의 독립변수 중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3문항으로 성별, 연령, 이사횟수가 포함되었으며 이사횟수는 현재까지의 총 이사횟수를 합산하였다.

##### 2)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정서자원

학업중단 청소년 개인의 심리·정서자원의 측정에는 이들이 지각한 학업중단에 대한 본인의 인식, 자이존중감, 자이탄력성, 우울감, 충동성 변인을 사용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에 관련한 심리·정서는 윤철경 외(2013)가 구성한 것으로 학업을 중단한 것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다.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를 그만둔 후에 응답자들이 느끼는 불안, 생활 만족도, 후회, 행복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부정적 인식과 긍정적 인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의 불안, 후회, 생활 만족도, 행복도 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이존중감은 총 5문항으로 최인재 외(2012)를 활용하여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인지, 좋은 성품을 가졌는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는지,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자이탄력성 역시 총 5문항으로 김지경(2010)에서 사용한 척도로 의지가 강하고 새로운 일을 좋아하며 놀리는 일을 당해도 괜찮아지는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척도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이존중감과 자이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감 척도는 이경상 외(2011)의 척도를 사용하여 10문항으로 구성했으며 외로움, 죽고 싶은 생각, 걱정, 미래에의 희망, 흥미와 관심 등을 묻고 있다. 다음으로 사용된 충동성 척도는 Grasmick et al.(1993)과 이희길(2006)을 활용한 5문항으로 내용은 화가 나면 물건을 가리지 않는지,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지, 힘들고 복잡해지면 포기하는지, 타인을 놀리고 괴롭히는지 등의 경향성을 묻고 있다. 우울과 충동성은 모두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고 충동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응답자의 심리·정서자원의 하위요인들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학업중단애의 인식  $chronbah's \alpha = .886$ , 자이존중감  $chronbah's \alpha = .856$ , 자이탄력성  $chronbah's \alpha = .752$ , 우울  $chronbah's \alpha = .890$ , 충동  $chronbah's \alpha = .756$ 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학업중단 청소년의 가족자원

연구에서 중요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가족자원에는 가족의 구성유형, 가족 경제수준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가족 구성 형태는 양부모 가족과 한부모 가족, 그 외 가족(조손가족, 시설, 친척 등)으로 구성되었다. 가정경제 수준 인식은 7점 척도로 측정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러하다 7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정경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지함을 의미한다.

가족자원으로는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모-자녀 관계를 살펴보았다. 청소년들의 근접 영역에서 중요한 상호작용이자 가족자원의 하나인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와의 애착, 부모의 방임, 부모의 학대로 구성하였고 부모애착은 총 8문항으로 최인재 외(2012)를 사용하여 부모가 이들에게 주는 위로, 이해, 따뜻한 등을 포함한 정서적 지지와 용돈이나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경제적 지지로 나누어져 있다. 부모의 방임은 5문항으로 허묘연(2000)의 방임측정 척도를 선정하여 수정한 것으로 평소 나와 나의 생각에 관심이 있는지, 아플 때는 병원을 데리고 갔는지, 늦은 귀가에 신경 쓰는지를 묻고 있으며 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부모의 학대를 측정하는 질문은 총 4문항으로 이경상 외(2012)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는지를 포함하고 있다. 부모와의 애착, 부모의 학대, 부모의 방임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학대와 방임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가족자원으로써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하위요인들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부모애착은  $chronbah's \alpha = .894$ , 부모 방임은  $chronbah's \alpha = .737$ , 부모의 학대  $chronbah's \alpha = .906$  이었다.

#### 4)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의 사회관계자원

사회관계자원에는 친한 친구 수, 또래애착을 통한 또래와의 관계와 멘토의 유무를 통한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래애착은 이경상 외(2012)의 척도를 선별하여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친구가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지, 친구들을 믿는지, 속내를 잘 터놓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의 애착이 높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는  $chronbah's \alpha = .858$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중단 이후 가족이나 친구 외 사회적 관계의 유무를 살펴보기 위해 윤철경 외(2013)의 문항을 수정하여 학업중단 이후 만난 성인 멘토나 도움을 준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 해당 사실이 있는지 유무에 대해 물었다.

#### 5)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력과 미래에 대한 생각

응답자들의 학력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학력에 대한 생각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각 3문항으로 질문하였다. 학력에 대한 생각은 이경상과 유성렬(2007)의 문항을 선정 및 수정하여 “우리 사회는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를 받는다.”,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심하게 차별을 받는다.”, “중·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는 취업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를 포함하며 학력에 대한 생각을 묻고 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은 전영실과 신동준(2012)의 문항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내가 원하면 대학을 갈 수 있다.”,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력이 낮으면 차별을 받는다 고 생각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요인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학력에 대한 생각은  $chronbah's \alpha = .714$ , 미래에 대한 생각은  $chronbah's \alpha = .816$ 으로 적절하게 나타났다.

#### 6)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복귀 선택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학교 중단이후 학교로 복귀한 경험이 있는지 유무를 사용했으며 학교복귀 선택에는 “복학한 경험이 있다”와 “현재 복학하여 학교에 다니고 있다”를 포함하였다. 사용된 종속변수인 학교 복귀 경험에 대해 패널조사의 1차년도는 “복귀한 경험이 있다”, “현재 복귀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다”, “복귀한 경험이 없다”의 3범주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2차년도에서 5차년도 자료는 “복귀한 경험이 있다”, “복귀한 경험이 없다”의 2범주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 5개년 자료를 복귀한 경험이 있다와 없다로 재구성하였다. 종속변수인 복귀 경험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은 문항의 경우 사용할 수 없어 결측치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 활용된 모형은 종속변수가 학업복귀의 경험 유무를 묻는 두 개의 범주로 나뉘는 이분변수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분석에 활용하였고 이를 위해 spss 28.0을 이용하였다.

분석에는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개인의 심리·정서자원, 가족자원, 사회관계자원, 미래와 학력에 대한 생각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측정도구의 적절성을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추출한 요인별로  $chronbah's \alpha$ 를 산출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복귀 선택 여부에 따른 이들의 개인의 심리·정서자원, 가족자원, 사회관계자원, 미래와 학력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집단 간 평균 비교를 위해  $t$ -test와 교차분석( $\chi^2$  test)을 실시하였다. 셋째, 설명변수로 사용된 개인의 심리·정서자원, 가족자원, 사회관계자원, 미래와 학력에 대한 생각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복귀 선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학업중단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학업중단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설문에 응답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성별은 남학생이 58.0%, 여학생이 42.0%로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를 보면 응답 당시 중학교 학령기 연령이 10.7%, 고등학교 학령기 연령과 그 이상의 연령이 87.3%로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학령기 이상의 연령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가정 배경 중 이사횟수는 0회가 56.5%로 가장 높았고 1회 이상-2회 미만은 23.3%, 5회 이상 8.1%, 2회 이상-3회 미만은 6.8%, 3회 이상-4회 미만 5.3%의 순으로 나타나 5회 이상 비교적 많은 이사를 한 경우가 3번째 순위를 차지하는 특성을 보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553)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	1468(58.0)
	여	1065(42.0)
연령	중학생(15세-16세)	272(10.7)
	고등학생(17세-19세)	2190(84.6)
	20세 이상	71(2.7)
이사 횟수	0회	1430(56.5)
	1회 이상 - 2회 미만	590(23.3)
	2회 이상 - 3회 미만	172(6.8)
	3회 이상 - 4회 미만	135(5.3)
	5회 이상	206(8.1)

### 2. 학업중단 청소년의 관련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성

조사대상자들의 학교복귀 경험, 개인의 심리·정서자원, 가족자원, 사회관계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표 2>와 같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첫째, 종속변수인 학교복귀 경험은 복교한 경험이 있다가 25.6%, 복교한 경험이 없다 74.4%로 복교한 경험이 있다는 문항에는 현재 복교 후 학교를 다니는 경우와 현재 다니지 않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복귀 비율은 교육부(2020)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23.5%에서 2019년 기준 15.8%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본 연구가 2013년에서 2017년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설문 응답자들은 현재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학교복귀율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설명변수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4점 만점으로 측정된 개인자원 중에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의 평균이 3.02점

( $sd = .63$ )으로 가장 높았는데 자신이 노력하면 앞날이 밝으며 자신이 원하면 성공을 하고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설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며 자신의 미래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들의 심리·정서 상태를 보여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2.97점( $sd = .53$ ), 자아탄력성 2.81점( $sd = .54$ )으로 우울 2.04점( $sd = .57$ )과 충동성 1.90점( $sd = .57$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학업중단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 2.64점( $sd = 1.08$ )이 부정적 인식 2.04점( $sd = .89$ )보다 높아서 스스로 선택한 학업중단에 대해 만족하고 있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에 상대적으로 더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가족자원을 구성하는 요인 중 응답자의 가족 구성 유형을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이 54.9%, 한부모 가정이 30.1%, 기타 15.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의 유형에는 조손가정과 혼자자구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가정경제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잘 산다에서 매우 못 산다까지 7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보통이다가 39.2%, 조금 못 산다 21.3%, 조금 잘 산다 16.1%, 못 산다 14.0%, 잘 산다 4.6%, 매우 못 산다 3.8%, 매우 잘 산다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 수준을 다시 세 그룹으로 나눌 경우 중(보통이다) 39.2%, 하(조금 못 산다, 못 산다, 매우 못 산다)는 39.1%로 이들의 가정경제 수준은 중·하의 분포가 78.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족자원 중 부모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위요인으로 부모의 방임은 2.26점( $sd = .87$ ), 부모의 학대 1.57점( $sd = .69$ )으로 정서적,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모애착 점수 각 2.97점( $sd = .66$ ), 2.81점( $sd = .79$ )인 것과 비교할 때 부모와의 애착이 학대나 방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이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부분에서 학대보다는 방임의 평균점이 높아 부모에게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무관심에 노출된 부분이 컸음을 알 수 있으며 그럼에도 비교적 부모가 자신들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며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관계자원 중 또래 관계를 나타내는 또래애착은 부모애착보다 높은 평균점인 3.14점( $sd = .60$ )을 보였는데 이들은 친구들을 믿고 친구에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으며 친구들이 자신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의 수는 평균 8.62명으로 비교적 높은 편차( $sd = 9.63$ )를 보여 친구의 수가 아주 많거나 아주 작은 극단적인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관계를 살펴본 학업중단 후 만난 성인 멘토가 있는지 혹은 관련 기관이 있었는지에 대한 해당 경험 유무를 묻는 것에는 전체 응답자의 13.1%가 그러한 경험이 없다고 했고 89.6%는 해당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누어져 비교적 학교 이외의 곳에서도 이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관련변인의 경향성

			(n=2553)	
변인	하위영역	n(%) / M(SD)		
학교복귀 선택	학교복귀 경험이 있다	648(25.6)		
	학교복귀 경험이 없다	1885(74.4)		
개인의 심리·정서자원	자아존중감	2.97(.53)		
	자아탄력성	2.81(.54)		
	우울	2.04(.57)		
	충동성	1.90(.57)		
	학업중단_부정적 인식	2.04(.89)		
	학업중단_긍정적 인식	2.64(1.08)		
	학력에 대한 생각	2.93(.64)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3.02(.63)		
가족 자원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1390(54.9)	
		한부모 가정	762(30.1)	
		기타	381(15.0)	
	가정 경제 수준	매우 잘 산다.	25(1.0)	
		잘 산다.	116(4.6)	
		조금 잘 산다.	407(16.1)	
		보통이다.	994(39.2)	
		조금 못 산다.	539(21.3)	
		못 산다.	354(14.0)	
		매우 못 산다.	98(3.8)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방임	2.26(.87)		
	부모의 학대	1.57(.69)		
	부모애착_정서	2.97(.66)		
사회 관계자원	또래관계	부모애착_경제	2.81(.79)	
		또래애착	3.14(.60)	
	사회적 관계	친한 친구 수	8.62(9.63)	
		학업중단 이후 멘토_없음	333(13.1)	
	학업중단 이후 멘토_있음	2220(89.6)		

3. 학교복귀 선택 유무에 따른 개인의 심리·정서자원, 가족 자원, 사회관계자원, 학력과 미래에 대한 생각의 차이

1) 학교복귀 선택 유무에 따른 심리·정서자원의 차이

조사대상자들의 개인 심리·정서자원이 학교복귀 선택을 하

는데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결과를 보면 우울, 충동성, 학업 중단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 학력에 대한 생각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복귀를 선택한 청소년 집단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 집단보다 우울( $t = -1.82, p < .05$ )은 더 낮았고 충동성( $t = 2.55,$

〈표 3〉 학교복귀 선택 유무에 따른 개인 심리·정서자원의 차이

		(n=2553)							
변인	구분	개인 심리·정서자원							
		자아 존중감	자아 탄력성	우울	충동성	학업중단_긍정	학업중단_부정	학력에 의 생각	미래에 의 생각
학교 복귀선택	복귀경험 있다(n=648)	2.96(.54)	2.81(.53)	2.01(.57)	1.95(.61)	2.50(1.17)	2.02(.97)	2.97(.64)	3.01(.64)
	없다(n=1885)	2.97(.53)	2.81(.54)	2.06(.57)	1.88(.56)	2.69(1.05)	2.05(.85)	2.91(.64)	3.02(.63)
	<i>t</i>	-.39	-0.5	-1.82**	2.55**	-4.02***	-.358	1.88**	-.36

\*\* $p < .005$ , \*\*\* $p < .001$

$p < .05$ )은 더 높았다. 학업중단 이후 현재의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t = -4.02, p < .001$ )은 학교복귀를 한 청소년집단이 더 낮았고 이들은 학력에 대한 생각( $t = 1.88, p < .05$ )에서 복귀한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우리 사회는 학력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학업중단 후 복귀한 적이 있는 청소년 집단은 학업중단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 대해 만족감이 떨어지며 학력이 자신들의 미래에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학업중단 후 복귀 경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학교복귀 선택 유무에 따른 가족자원, 사회관계자원의 차이

조사대상자들의 학교복귀 경험의 유무에 따라 이들의 가족자원과 사회관계자원에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와의 관계·또래관계·사회관계에 대한  $t$ -test,  $\chi^2$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부모와의 관계자원 중에 언어적, 신체적 학대( $t = 2.48, p < .05$ )의 수준이 더 높은 것이 이들의 학교복귀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퇴 후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으로써 멘토나 기관( $\chi^2 = 367.426, p < .001$ )과의 관계유지를 하고 있는 것 또한 학교복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외 자퇴 후 자신을 도와주고 조언을 해 주는 사회적 관계자원의 존재가 이들의 복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 4. 개인의 심리·정서자원, 가족자원, 사회관계자원이 학교복귀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교복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관련 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총 3가지의 모델을 활용했으며 각 변인들의 투입순서는 통계적인 영향력에 따라 구성하였다. 모델 I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였고 모델 II에서는 개인의 심리·정서자원을 총 8개 투입하였다. 최종적으로 모델 III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자원과 사회관계

자원을 비롯하여 모든 요인을 투입하여 이들의 학교복귀 선택에 어떠한 요인이 효과성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모델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모델로 구성된 모델 I은 10.7%의 설명력을 보였으나 모델 II에서 개인의 심리·정서 관련 변인들이 추가되자 설명력은 9.6% 증가하여 20.3%가 되었다. 여기에 가족자원과 사회관계자원 등의 관계요인을 추가한 모델 III의 설명력은 모델 II에서 21.5% 증가하여 41.8%로 높게 나타나 모든 변인을 투입할수록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모델의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학교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개인 및 가족자원, 사회관계자원들을 모두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관련된 변인들을 모두 포함한 모델 III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는 이사횟수( $B = -.966, p < .001$ )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복귀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횟수가 적을수록 이들의 학교복귀 선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되는데 이 변인은 전체 모델에서 일관되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잦은 거주지 이동은 청소년들의 학업을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힘들게 하고 특히 새로운 환경과 학교, 친구들과 적응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학업중단 이후 복귀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심리·정서자원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우울( $B = -.552, p < .001$ ), 충동성( $B = .249, p < .05$ ), 학업중단 인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 $B = -.272, p < .001$ ), 학력에 대한 생각( $B = .221, p < .05$ )이 이들의 학교복귀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영향력은 모델 II에서도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즉, 우울감은 낮고 충동성은 높을수록, 현재 학업중단 후 현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만족감이 떨어질수록 학교복귀 선택이 늘어났으며 학력에 대한 생각 즉, 우리나라는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를 받는 사회라는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역시 학교복귀 선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학교복귀선택 유무에 따른 가족자원, 사회관계자원의 차이

(n=2553)

변인	구분	가족자원				사회관계자원		
		부모 방임	부모 학대	부모애착 _정서	부모애착 _경제	또래 애착	친한 친구수	사회적 관계
학교 복귀경험								있다(n=1552, 70.5%) 없다(n=0, 0%)
복귀 선택	있다(n=648)	1.89(.56)	1.63(.57)	2.96(.68)	2.84(.77)	3.11(.62)	9.72(.98)	있다(n=648, 29.5%) 없다(n=333, 100%)
	없다(n=1885)	1.89(.55)	1.55(.57)	2.98(.66)	2.80(.80)	3.14(.59)	7.52(.94)	
	$t$	1.36	2.48**	-.50	.79	-.97	.83	$\chi^2 : 367.426^{***}$

\*\* $p < .005$ , \*\*\* $p < .001$

이는 기존의 연구들을 볼 때 청소년들의 학교 복귀에 중요한 요인 중에 현재에 만족할 수 없고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홍나미 외 2013). 또한 학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학교복귀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 학력과 졸업장에 대한 인식변화 역시 동일한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와 학력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는 것이 복귀의 요인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 역시 기존의 연구와 일치한다(김신영·정경은 2014; 오혜영 외 2011; 김상현·양정호, 2013).

특히 모든 요인을 고려한 모델III에서 가족구성( $B = .377, p < .001$ )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가족자원으로 등장하였는데 양부모인 가족형태가 학업중단 후 학교복귀 선택을 높이는 것으로 작용했다. 기존연구에서도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교복귀 요인에 가족형태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족자원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른 연구들이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김신영·정경은 2014). 학업중단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상호작용요인 즉 가족자원 중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모와의 애착에서 경제적 요인( $B = .220, p < .05$ ) 및 사회적 관계

( $B = .277, p < .05$ )가 이들의 학교복귀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이 경제적인 걱정을 하지 않도록 부모가 지원하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학교로의 복귀 선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관계에서 학업중단 이후 이들을 지원하는 멘토의 경험이 있는 것이 이들의 학교복귀 선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것은 이들이 학교로 돌아오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하는데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가족자원으로 구성된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지지가 이들을 학교로 돌아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걱정 없이 학업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주관적으로 느낄 때 부모의 경제적 지지라는 애착 요소가 학교복귀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상담자이든 지인이든 주변에 자신을 지지하는 사회적 관계의 경험이 학교 복귀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보다는 경제적 지지가 유의미했고 이와 함께 이들을 둘러싼 사회관계에서 주변 사람의 지지가 학교복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현의·이소영·권해수, 2002; 조규필 외, 2011; 오혜영 외, 2011).

〈표 5〉 학교복귀선택 유무에 따른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n=2553)

		Model I		Model II		Model III	
		B	Exp(B)	B	Exp(B)	B	Exp(B)
인구	연령	-.001	.999	.000	1.000	.001	1.001
사회학적	성별	.105	1.111	.107	1.113	.028	1.029
변인	이사횟수	-.641***	.572	-.836***	.433	-.966***	.381
개인심리	자아존중감			-.160	.852	-.130	.878
	자아탄력성			-.015	.985	.047	1.048
	우울			-.507***	.602	-.552***	.577
	충동성			.327**	1.387	.249**	1.282
	정서자원	학업중단인식_긍정			-.293***	.0746	-.272***
	학업중단인식_부정			.007	1.007	-.005	.955
	학력에의 생각			.280***	1.323	.221**	1.247
	미래에 대한 생각			.092	1.907	.105	1.111
가족	가족구성					.377***	1.458
	가정경제수준					-.052	.949
	부모방임					.141	1.151
	부모학대					.156	1.169
	부모애착_정서					-.129	.897
사회관계	부모애착_경제					.220**	1.246
	또래애착					-.069	.933
	친한 친구 수					.010	1.010
	사회적 관계					2.77***	15.977
Constant		-.901		-.241		-3.232	
Nagelkerke R <sup>2</sup>		.107		.203		.418	
ΔR <sup>2</sup>		.073		.147		.292	
x <sup>2</sup>		203.103***		305.107***		689.217***	

\*\* $p < .005$ , \*\*\* $p < .001$

다시 말해 가족자원과 사회관계자원을 통해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관적인 인식이 있고 선배나 주변 지인, 어른, 사회적 기관의 지속적인지적 즉 사회관계자원이 이들을 학교로 돌려보냈다고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가족자원 중 가정의 경제수준은 이들의 학교복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하위요인 중 경제적 지지 즉 현재 가정이 부유한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우리 부모는 나에게 필요하다면 아낌없는 지원을 한다는 믿음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여 눈여겨 볼만하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업을 중단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온 경험이 있는 청소년 자녀들의 학교복귀 선택에 영향을 준 자원들을 이들의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개인의 심리정서 자원, 가족자원 및 사회관계자원을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가족자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학교복귀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관련 변인들이 학교복귀 선택에 미친 상대적 영향력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중에 이사횟수가 전체 모형에서 일관되게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사횟수는 다양한 분포를 보였는데 특히 5회 이상이 8.1%로 전체 빈도 중 3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사횟수가 늘어날수록 학교로 복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심리·정서자원을 통해 개인의 정신건강의 요소와 가치관이 또한 학교복귀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보았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감이 낮고 학업중단을 한 현재의 현실에 대한 만족감이 낮으며 우리 사회가 학력에 대한 차별을 한다는 점을 높이 지각한 경우 학교로 복귀한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기는 감정적인 변화가 심하고 복잡적이며 정서적인 문제가 진로에 대한 결정의 실패로 연결되는 것을 밝힌 기존의 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도 심리·정서 요인 중 우울감이 학교복귀라는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진 것은 비슷한 맥락이라 하겠다(김신영·정경은 2014; 오혜영 외 2011; 김상현·양정호, 2013). 또한 학업에 대한 생각 즉, 학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력과 졸업장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이 학교로 돌아오게 했는데 이러한 학력에 대한 생각은 이들이 학교복귀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개인의 심리·정서자원을 통해 정책이나 예방적인 개입과 관련해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은 현재의 학업 중단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만족스럽지 않고 또한 학력을 유

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청소년 자녀들에게 다음 논의에서 다루게 될 가족유형을 잘 반영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부모가 모두 함께 있지 않는 가족구조를 살펴보고 가족유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이다. 가령 장학금이나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주는 실제적인 가족지원과 함께 학업유지나 현재의 불안에 대한 청소년상담, 부모상담, 가족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두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들이 학교로 복귀하는데는 잦은 이사라는 불안정한 가족환경과 함께 다른 차원으로 청소년 자녀 개인의 심리·정서적 특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다음에 살펴볼 가족자원 특히 부모-자녀 관계와 연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개인의 심리·정서와 이를 통제하는 것, 충동, 가치관 등은 가족 특히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많은 부분 이루어지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상호작용 대상인 부모와의 관계의 영향을 고려하고 나아가 사회적 관계와 또래 관계까지 확장하여 이들의 복귀에 영향을 준 요인을 살펴보았다.

셋째, 가족자원 중 청소년 자녀들의 학업복귀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가족구성 형태로 나타났는데 양부모인 경우 학교로 복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사회적 지지망이 약하여 위험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때 가족과 가족 내 자원은 청소년에게 성장발달의 일차적 관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환경이다(손충기 외, 2012). 특히 선행연구들도 가족유형이 결손과 해체의 가정환경일 때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고 더 많은 적응상의 문제를 겪으며 가족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더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오승환, 2001; 정선욱, 2002). 즉,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가족구조가 작용하며 비행 문제까지 영향을 준다는 과거의 연구 결과들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들에게 함께 거주하며 실제적이고 심리적 자원을 제공할 가족 내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Cassell, 2003; 김선아, 2012).

다음으로 학업복귀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교를 관둔 후에도 자신에게 멘토의 역할을 하면서 도움을 주는 사회적 관계자원의 존재와 가족자원 중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애착 형성 부분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요인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에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가족자원으로 구성된 가족구성 형태가 가족환경으로 작용함을 볼 수 있었다(오화선·김미애, 1993; 성희자, 2012). 특히 부모와의 애착에서는 정서적 지지보다는 경제적 지지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부모가 현재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자신이 필요할 경우 아낌없이 지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경우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학교로 돌려보내는 안정적인 가족자원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목할 부분으로 기존 연구들에서는 부모와의 관계나

양육의 태도는 살펴보고 있으나 부모와의 관계를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 지지의 애착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특히 이들에게 어떠한 부분이 더 영향력이 있는 가족자원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학업을 그만둔 청소년들은 다양한 가족환경, 심리·정서 상태, 사회적 관계에 놓여 있을 것이나 이들을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작용한 부분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특히 경제적 지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족 내 경제적 자원이 더 부족해 노동시장에 더 참여한다는 기존의 학업중단연구와 연결해 볼 수 있다. 즉, 학교로 복귀하고 싶으나 이들이 부모로부터 충분히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부족은 청소년들의 노동시장의 참여를 늘리고 상대적으로 학교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의 학교복귀 선택에 있어 부모로부터 충분히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학교복귀를 고려하게 만드는 긍정적 자원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족 자원에 대한 회복과 가족의 성장을 위해 청소년 자녀를 비롯한 가족이 함께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시군구 가족지원센터에서 청소년 자녀를 포함한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족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에게 건강한 가족자원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가족에 맞는 부모-자녀 관계 개선 프로그램과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 자원으로의 변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 속에 멘토의 역할이 중요한 활용자원이었다. 이 결과는 청소년기는 사회적 관계망과 이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고 있으며 이들 청소년들에게 멘토링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사회관계자원으로 활용함이 중요한 부분임을 시사한다. 가족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사회관계자원에서 긍정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존재는 중요한 지지자원으로 기능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사회관계자원의 개입 방향성은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상담자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지지 역할이 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며(오혜영 외, 2011),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자퇴 결심 전 조기개입과 지원도 함께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김성기, 2017; 박하나·김정은·김현수, 2021; 정재민, 2012). 이처럼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의 학교복귀 선택의 지원 및 학교 재적응 지원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학교 재적응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고위기의 문제를 다루는 상담사의 전문성 확보와 폭넓은 사회적 연계 및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청소년 자

녀의 학업중단에 대해 예방적 개입과 학업중단 이후 지원을 위하여 가족을 중심으로 개인·가족·학교·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지원 및 개입과 연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의 학교복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에 대해 개인의 심리·정서는 물론 가족자원으로서 부모관계 그 외 사회적 관계, 또래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 학업중단 패널의 1차 년도에서 5차 년도 자료를 모두 연구에 사용하였다. 특히 부모애착을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 지지로 나누어 청소년 자녀의 인식을 살펴보고 또래 관계, 사회적 관계까지 확장하여 검증한 점이 그 의의라고 하겠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들이 학교복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요인들을 밝혀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지지자원의 긍정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본 연구는 5차 년도 전체 패널 자료를 활용하는데 전체 기간 일관되게 측정된 변수를 활용하고자 했으므로 특정 년도에 측정에서 제외된 변수는 사용에서 배제되어 제한된 변수들이 사용되었다. 특히 이러한 변수들 중 관계요인이나 개인의 심리·정서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다수 있었는데 선생님과의 관계 요인 등은 청소년기에 중요한 상호작용 관계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학업중단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복귀경험이 있다와 없다로 이분하여 살펴보았는데 학교복귀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복귀와 중단을 반복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청소년들 또한 포함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자퇴와 복귀를 반복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가족환경, 심리·정서 상태, 사회적 관계 등을 살펴보는 것도 더 나아가 필요한 연구라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1) 강유진·문재우(2005).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한국청소년연구*, 16(1), 283-316.
- 2) 공정민(2021).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진로장벽 간의 관계: 사회적 낙인감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교육부(2020). *교육기본통계*. 교육부.
- 4) 구자경(2003).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학교자퇴생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309-330.
- 5) 권소연·이미영·장은진(2018). 중등교육 중단 후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학업중단 위험요인 및 학업복귀 촉진요인에 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5(1), 111-132. DOI : 10.16983/kjsp.2018.15.1.111.

- 6) 금명자(2008).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 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14(1), 299-317.
- 7) 김년희(2021). 학업중단 청소년 우울이 자이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부모애착 ·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1(2), 343-350. DOI : 10.5392/JKCA.2021.21.02.343.
- 8) 김미경(2021). 학업 중단 청소년의 학력에 대한 가치와 미래에 대한 생각 변화 연구. 사회과학연구, 32(2), 25-41. DOI : 10.16881/jss.2021.04.32.2.25.
- 9) 김로라 · 이조경(2016).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및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 중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9), 53-81. DOI : 10.21509/KJYS.2016.09.23.9.53.
- 10) 김상현 · 양정호(2013).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배경과 복교 후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1(1), 81-113.
- 11) 김선아(2012). 학업중단청소년 중 비행과 일반청소년의 개인사회적요인과 중단 후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0), 216-226. DOI : 10.5392/JKCA.2012.12.10.216.
- 12) 김성기(2017).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관련 법제 개선 방안. 교육법학연구, 29(3), 1-21. DOI : 10.17317/tjle.29.3.201709.1.
- 13) 김성은 · 박하나 · 김현수(2020). 학업중단 현황조사 및 지원방안 보고서. 교육부.
- 14) 김성현(2020). 자이존중감과 관용성이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2), 177-198.
- 15) 김신영 · 정경은(2014). 무엇이 이들의 학교복귀를 가로막고 있는가? 학업중단 청소년 경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6(3), 179-205.
- 16) 김옥엽 · 이연숙 · 원유미(2004). 전라북도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의식 및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분석. 상담학연구, 5(3), 725-741.
- 17) 김은지(2016).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8) 김지경(2010). 지능에 대한 신념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 자기구실 만들기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인으로. 교원교육, 26(6), 99-116.
- 19) 김지민 · 이은경(2021). 학업중단 후기청소년의 부모 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이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다중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8(3), 231-255. DOI : 10.21509/KJYS.2021.03.28.3.231.
- 20) 김지혜(2008).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질적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1) 김현주 · 박재연(2019).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학업중단 이전, 당시, 이후 경험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3), 119-130. DOI : 10.35873/ajmahs.2019.9.3.012.
- 22) 김현지 · 양명숙(2017). 학업중단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15(1), 23-34.
- 23) 남부현(202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관련 생태체계 속 삶의 경험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1), 307-344.
- 24) 문미자(2002). 중퇴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복귀 소집단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및 치료적 요인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5) 문선화(2003). 복교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6) 문숙자 · 이윤정(2021).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애착, 또래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2(5), 355-363. DOI : 10.15207/JKCS.2021.12.5.355.
- 27) 박하나 · 김성은 · 김현수(202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사유와 경험 이해 : 학업중단 예방 정책에의 시사점. 한국청소년연구, 32(3), 261-288.
- 28) 반지윤 · 이정민(2021).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가 사회적 낙인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성별 다중집단분석 적용. 청소년학연구, 28(1), 341-366. DOI : 10.21509/KJYS.2021.01.28.1.341.
- 29) 백순희(2017). 학업중단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이 자립준비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지역사회자원 활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0) 성희자(2012). 가족위기로인이 인터넷 과다사용을 매개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8(1), 1-20.
- 31) 손충기 · 배은자 · 김영태(2012). 청소년 학업중단의 가족 및 사회환경적 요인 분석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6), 2504-2513. DOI : 10.5762/KAIS.2012.13.6.2504.
- 32) 신나나 · 도현심(2000).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상호작용 효과. 가정과삶의질학회지, 18(3), 99-114.
- 33) 신문정(2021).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 가족, 친구, 지역사회체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4) 신은정(2011).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대한 사회경제지위(SES), 부모관계, 친구관계, 용서에 대한 영향력 분석.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5) 심현진(2014). 청소년의 미시체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6) 안현의 · 이소영 · 권해수(2002).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 학교 중도탈락 청소년의 욕구와 심리적 경험조사.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46, 19-31.

- 37) 안혜진(2016).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적응 간의 중단연구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2), 475-493. DOI : 10.22251/jlcci.2016.16.12.475.
- 38) 오승환(2001).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부모 이혼, 별거가족과 사망가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17(17), 99-125.
- 39) 오은경(2015).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0) 오혜영 · 지승희 · 박현진(2011).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9(2), 125-154. DOI : 10.35151/kyci.2011.19.2.007.
- 41) 오화선 · 김미예(1993). 청소년의 가정환경지각과 정신건강의 관계. 모자간호학회지, 3(1), 25-37.
- 42) 유성경(2000). 청소년 탈비행과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육학회, 38(3), 81-106.
- 43) 윤철경 · 최인재 · 유성열 · 김강호(2015).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44) 윤철경 · 유성열 · 김신영 · 임지연 · 엄아람 · 최은희(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45) 이경립(2003). 실업계 고등학교의 중퇴와 관련된 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체계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6) 이경민 · 양경화 · 이난(2018). 청소년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이 학업중단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의 매개효과. 복지상담교육연구, 7(1), 105-132. DOI : 10.20497/jwce.2018.7.1.105.
- 47) 이경상 · 서정아 · 배상률 · 성은모 · 김지영 · 강현철 · 한영근 · 장주희 · 이재연(2012).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2010 III 사업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48) 이경상 · 백해정 · 이종원 · 김지영 · 김현주 · 한영근(2011).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2010 II 사업보고서(연구보고 11-R1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49) 이경상 · 유성열(2007).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V :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의 변화와 특성.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50) 이경열(1999). 중퇴청소년의 학교복귀를 위한 공식적 지지 체계에 관한 사례연구: 부산광역시 심성수련교육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1) 이은희 · 양이정(2018).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 융복합 시대에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융합정보논문지, 8(2), 37-44. DOI : 10.22156/CS4SMB.2018.8.2.037.
- 52) 이자영 · 강석영 · 김현주 · 유영 · 양은주(2010).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중단의 위험 및 보호요인 탐색: 개념도 연구법의 활용. 청소년상담연구, 18(2), 225-241. DOI : 10.35151/kyci.2010.18.2.014.
- 53) 이주연 · 정제영(2015). 학업중단 결정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 연구. 청소년학연구, 22(11), 239-267.
- 54) 이준기(2011). 학업중단 청소년의 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5) 이지혜 · 조은호 · 박미연 · 김현경(2020).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지지 및 또래지지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과 사회적 낙인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3(2), 165-180. DOI : 10.35574/KJDP.2020.6.33.2.165.
- 56) 이희길(2006). 범죄성의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7) 이희선(2013).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8) 전영실 · 신동준(2012).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에 관한 연구. 세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59) 전주희(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사회적지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9(1), 152-157.
- 60) 정민선 · 김현미 · 유순덕(2011). 잠재적 학업중단청소년의 학업지속 요인에 관한 질적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9(1), 87-105. DOI : 10.35151/kyci.2011.19.1.005.
- 61) 정선옥(2002). 가정 외 보호를 받는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애착유형 및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0(20), 149-172.
- 62) 정송화 · 이경은(2021). 부모의 지지 및 방임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3(1), 151-168.
- 63) 정은영(2020).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복귀 경험에 관한 연구: 대안학교 청소년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4) 정재민(2012).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예방을 위한 실천 전략 개발 질적연구. 청소년 문화포럼, (30), 66-91.
- 65) 조규필 · 박현진 · 김래선 · 김범구 · 양대회 · 이현진 · 황수진(2011).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 재적응 과정 연구.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 59(4), 969-1000. DOI : 10.25152/ser.2011.59.4.969.
- 66) 조혜영 · 김영란(2018).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참여 경험 연구. 미래교육연구, 8(3), 63-92.
- 67) 최수정(2018).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과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서울한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68) 최영신(2001). 비행 청소년의 학교 중퇴와 대안학교. 교육

- 사회학연구, 11(3), 127-152.
- 69) 최우경(2017). 부모-자녀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학업중단숙려 대상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0) 최인재 · 모상현 · 이선영 · 김혜인 · 이재연(2012).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 :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71) 최종원(2021).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지속 여부에 따른 특성.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2) 한우재 · 정인관(2021). 부모양육방식, 또래영향, 지역사회환경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6, 57-80. DOI : 10.15300/jcw.2021.76.1.57.
- 73)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74) 홍나미 · 신문희 · 박은혜 · 박지현(2013).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복귀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접근. 청소년복지연구, 15(1), 121-153.
- 75) Collins, N. L. & Read, S. J.(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DOI : 10.1037/0022-3514.58.4.644.
- 76) Fagot, B. I.(1997). Attachment, parenting, and peer interactions of toddler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3), 489-499. DOI : 10.1037/0012-1649.33.3.489.
- 77) Grasmick, H. G., Arneklev, B. J., Tittle, C. R., & Bursik, R. J.(1993). Low Self-Control and Imprudent Behavior.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9(3), 225-247.
- 78) Greene, R. R.(1999). Human behavior theory and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 Aldine De Gruyter.
- 79) Hernandez, L. P.(1993).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80) Hoffman, B. R., Monge, P. R., Chou, C-P. & Valente, T. W.(2007). Perceived peer influence and peer selection on adolescent smoking. *Addictive Behaviors*, 32(8), 1546-1554. DOI : 10.1016/j.addbeh.2006.11.016.
- 81) Masten, A. S. & Reed, M. G. J.(2002). Resilience in Development.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pp.74-88).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82) Mouton, S. G., Hawkins, J., McPherson, R. H. & Copley, J.(1996). School Attachment : Perspectives of Low Attache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3), 297-304. DOI : 10.1080/0144341960160306.
- 83) Muha, D. G. & Cole, C.(1991). Dropout Prevention and Group Counseling. San Francisco : Jossey-Bass.
- 84) R. N. Cassell, (2003). A High School Drop-Out Prevention Program for the At-Risk Sophomore Students. *Education*, 123(4), 649-658.
- 85) Springer, J. F., Wright, L. S. & McCall, G. J.(1997). Family Interventions and Adolescent Resiliency : The Southwest Texas State High-Risk Youth Program.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5(5), 435-452. DOI : 10.1002/(SICI)1520-6629(199709)25:5<435::AID-JCOP5>3.0.CO;2-R.
- 86) Van Ijzendoorn, M. H.(1992).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ing : A review of studies in nonclinical populations. *Developmental Review*, 12(1), 76-99. DOI : 10.1016/0273-2297(92)90004-1.

- 투 고 일 : 2021년 12월 15일
- 심 사 일 : 2022년 01월 20일
- 게재 확정일 : 2022년 01월 26일